

투어 번호
LKN5ZASPEC

사원과 자연 (22일)

22일 · 2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이 체험 소개

이 22일 투어는 전용 운전기사 가이드와 함께 스리랑카 전역을 한 번에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해안, 문화삼각지대의 고대 도시들,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 산악 지역, 남부의 숲과 야생동물 공원, 그리고 벤토타의 해변에서의 연장된 체류. 여행은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진행되며, 각 지역을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탐험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에서 여러 밤을 보냅니다.

여행 중에 여행자들은 아누라다푸라의 유적을 산책하고, 시기리야 바위 요새에 올라가며, 담불라의 석굴 사원을 방문하고, 캔디의 치아 사원과 왕립 식물원을 보며, 호튼 평원 방문을 포함한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루트는 엘라의 등산로,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의 코끼리, 싱하라자의 열대우림, 벤토타 근처의 마두 강 습지를 지나 해변에서의 며칠로 마무리됩니다.

이 투어는 운전과 현지 준비를 담당하는 전용 운전기사 가이드가 이끌며, 교통, 운전기사 숙박, 세금 및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숙박, 입장료, 항공편 및 개인 비용은 별도로 준비됩니다. 일정이 개인 맞춤형이므로 귀사 그룹에 맞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오랜 어업 전통을 지닌 해변 도시 네곰보에서 서부 해안을 따라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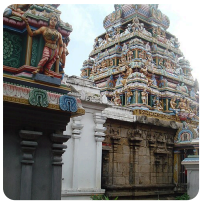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어업 활동을 지켜보세요. 산호초와 연안에 자리한 50년 된 난파선 주변을 탐험하는 다이빙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 난파선은 현재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아누라다푸라

문화삼각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이동하며, 도중에 중요한 힌두 사원 단지에 들릅니다.



문네스와람 사원

칠라우 인근에 위치한 이 지역 힌두 사원 단지는 적어도 기원후 1000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전설에 따르면 라마야나와 그 영웅 왕 라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시바 신을 모신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Day 3 아누라다푸라 → 시기리야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의 유적을 탐험한 후 시기리야로 이동합니다.



아누라다푸라 고대 도시

10세기까지 섬의 수도였던 이 폐허 도시를 거닐어 보세요. 광대한 부지에 불탑, 승원 건물, 연못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지가 있습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4 시기리야 → 민네리야 → 시기리야

시기리야 암벽 요새, 마을 체험, 그리고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를 함께 즐기는 알찬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카샤파 왕 치하에 건설된 이 5세기 암벽 요새는 사자 발 모양의 입구에서 이름을 딴 '사자 바위'로 알려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잘 보존된 벽화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고대 스리랑카의 수리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계단식 정원과 저수조에 이릅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잔잔한 호수를 카타마란 사파리로 건너며, 논밭을 걸어 전통 요리 시범을 지켜보세요. 점심은 장작불로 조리되어 연잎에 담겨 제공되며, 스리랑카 농촌 생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공원의 관목지와 숲을 가로지르는 사파리로,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코끼리 집결'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시기리야 → 담불라 → 캔디

캔디로 가는 길에 담불라의 석굴 사원과 마탈레의 향신료 농원을 방문하며, 하루는 전통 춤 공연으로 마무리됩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석굴 사원에는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고대 벽화와 신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원 단지 밖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마탈레 향신료 투어

스리랑카 향신료 재배의 중심지인 마탈레의 향신료 및 약초 농원을 방문하여, 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는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의 향신료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보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문화 공연

전통 스리랑카 공연 예술을 한 시간 동안 감상하는 공연으로, 불춤, 칼춤, 캔디안 댄서들이 드럼 연주에 맞춰 춤을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6 캔디

캔디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유적지와 식물원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꾸며진 통로와 홀, 조각된 기둥과 황금 조각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캐넌볼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 그리고 거대한 그늘나무들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7 캔디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 실론 티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와라엘리야는 과거 영국인들이 즐겨 찾던 고지대 휴양지입니다.

차 공장과 농장

실제로 운영 중인 공장과 농장에서 실론 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세요. 차는 1824년 스리랑카 왕립 식물원에 처음 심어졌으며,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룰레콘데라 농장에 정착하면서 상업적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와라엘리야 타운

이 고지대 도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휴양지였으며, 거리마다 코티지, 빌라, 저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을 방문하고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8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 운무림, 전망대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인근에 위치한 공원의 고산 초원과 운무림을 탐험하며, 월드 엔드 절벽에서의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물보라를 감상하세요. 이 평원에는 여러 고유종과 고고학적 유적지가 존재합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9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하루입니다.

Day 10 누와라엘리야 → 엘라

엘라로 이동하며 가장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이동 경로는 차밭과 암석 지대를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이 역사적인 다리를 걸으며 건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구조로 유명한 이 역에서 도보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A.Savin · FAL

Day 11 엘라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로 향하는 하이킹입니다.

엘라 록

약 세 시간이 걸리는 엘라 록 하이킹 길에서는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반다라웰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갭, 그리고 바둘라 철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Day 12 엘라 → 우다왈라웨

엘라에서 우다왈라웨로 이동하여 다음 숙소에 체크인합니다.

Day 13 우다왈라웨

코끼리로 유명한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하루입니다.



우다왈라웨 국립공원 사파리

1970년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조성된 이 공원의 습지, 숲, 초원을 세 시간 동안 둘러보는 사파리입니다. 물새와 스리랑카 코끼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나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4 우다왈라웨 → 신하라자

열대우림 인근에서 머무르기 위해 신하라자로 이동합니다.

Day 15 신하라자

전통 피시 스파 체험으로 여유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피시 스파 테라피

신하라자 지역의 자연 물줄기에는 현지에서 '닥터 피시'로 불리는 이빨 없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발의 건조한 피부를 뜯어먹어 발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Day 16 신하라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신하라자 숲 보호구역으로 향하는 정글 사파리입니다.



신하라자 숲 보호구역

이곳은 스리랑카에 남아 있는 마지막 원시 열대우림으로, 울창한 상록수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숭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려한 색깔의 숲새들을 찾아보세요. 운이 좋다면 나뭇잎 사이에서 초록색 살모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Dan Lundberg · CC BY-SA 2.0

Day 17 신하라자 → 벤토타

신하라자에서 해안 도시 벤토타로 이동합니다.

Day 18 벤토타

마두강의 습지 생태계를 탐험하는 보트 여행입니다.



마두강 보트 투어

마두강의 맹그로브 수로를 지나며 일광욕 중인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를 수확하는 작은 섬을 방문합니다. 투어에는 피시 마사지와 물새 관찰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UPindia · CC BY-SA 4.0

Day 19 벤토타 (19~21일차)

벤토타의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사흘간의 자유 시간입니다.



벤토타 해변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모래, 바다 바람이 어우러진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바다 위로 지는 일몰을 감상하세요. 이곳에는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찾아오며, 해변가 호텔들과 함께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Vincent van Zeijst · CC BY-SA 3.0

Day 22 벤토타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며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temples-and-nature-22-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